

외로움과 상실감을 노래하다

‘석정시문학상’ 만장일치로 신달자 시인 수상
‘석정촛불시문학상’ 당선작 이춘호 시 ‘도마’

(사)신석정기념사업회(이사장 윤석정)가 주관하고 올해부터 부인군(군수 권익현)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제6회 ‘석정시문학상’에 신달자 시인이 만장일치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편 미발표 시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석정촛불시문학상’은 본심에 올라온 12명의 시 60편을 대상으로 토의한 결과 이춘호의 시 ‘도마’ 역시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운룡(위원장), 박찬선, 구재기, 최동호, 김종섭 시인 등 5인의 심사위원은 지난 9일 오후 3시 전주 한일관 별실에 모여 양대 분야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의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했다.

최종심에 앞서 개최한 신석정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정군수(석정문화관 관장) 시인 등 5인은 본심 심사위원을 비롯하여 ‘석정시문학상’ 후보자로 10인을 추천하여 본심에 상정하였다. 후보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추천 사유는 “석정의 문학적 위상 제고에 순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단적 공적, 작품의 우수성 등 문화사

회적 평판이 좋은 시인을 추천했다”는 직전 ‘석정시문학상’ 운영위원장 소재호(현 표현문학회 회장) 시인의 전언을 참조했다.

먼저 실시한 ‘석정촛불시문학상’ 수상자 선정 방식은 응모작 5편씩 제출받은 215명의 1076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온 12명의 시 60편을 미리 우편으로 송달되어 읽고 왔기 때문에, 본심 심사위원 각자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시 2편의 제목을 수합 집계, 다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하도록 합의한 결과(구제기 시인 제안) 이춘호 씨의 시 ‘도마’가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어서 ‘석정시문학상’ 수상자 선정 방식 역시 예심에서 올라온 10명의 후보자 명단과 프 로필이 미리 송달되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 대상자를 7인으로 압축한 뒤 각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 2명씩을 제출 받아 집계한 결과 신달자 시인이 만장일치 수상자로 결정됐다.

신달자 시인의 초기 시집 ‘봉헌문자’, ‘고향



신달자



이춘호

의 물’, ‘모순의 방’, ‘아기’ 등은 이름의 침묵 속에 현신하는 진실을 제시하면서 한결 높은 차원으로 인간 생활의 본질 면에 밀착시킴으로써 인간적 외로움과 숙명적 상실감을 노래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시인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시집 ‘종이’와 ‘복춘’이 그러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독자적인 자기만의 시세계를 구축하였음과 동시에 이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 인 시인으로 확고하게 그 위치를 다져 ‘석정시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이다.

양대 문학상 시상식은 31일 오후 3시 부안을 석정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장은성 기자

‘인문학으로 알아가는 문화유산’

16일 고창농악전수관서 인문학콘서트 ‘잡색’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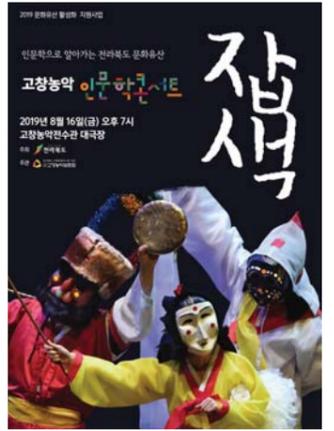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의 고창농악 인문학콘서트 ‘잡색’이 오는 16일 오후 7시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인문학콘서트는 농악의 잡색을 주제로 강연과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문화 콘텐츠로 전북도민들에게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농악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생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인문학콘서트는 농악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기획했다. 작년하해 전라도의 팽과리, 전라도의 소고, 고창의 대보름굿, 풍장굿을 주제로 공연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고창농악의 잡색을 주제로 기획했다.

잡색이란 농악에서 악기치배 외에 가장(假將)을 하고 참여하는 자를 일컫는다. 잡색(雜色)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판에서 ‘모였다 흩어지며 뒤섞이고 어우르는 역할’을 한다.

강연으로 허용호(문학박사,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객원교수, 한국민속학회 연구위원)의 ‘탈춤과 농악 그리고 잡색놀이’와 남기성(연출가, 흥꾼, 미학박사, ‘칼 노래 칼춤’, ‘도리화 귀경가’, ‘광대, 1894’ 등 작곡 및 연출)의 ‘가면과 잡색, 고창농악 도둑잡이굿의 해석’이 펼쳐진다.

또한, 고창농악보존회와 고창농악 이수자들로 구성된 전통연희예술단 ‘고풍’이 선보이는 고창농악 판굿 중 일광놀이, 도둑잡이굿 실연이 펼쳐지며 잡색 몸짓과 춤사위



를 배워보는 잡색 놀이 체험도 진행된다.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고창농악의 12잡색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구성으로 각각의 특징과 춤사위가 풍부하다”며 “허용호 남기성 선생님의 잡색과 탈춤에 대한 이야기와 고창농악 도둑잡이굿의 해석 등 다양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의 문화재 보존과 전승, 문화유산 연구 및 활동 등을 위한 2019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전주박물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전주박물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업무 협약 체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과 한국학중앙연구원(관장 주영하)은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선비문화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위해 추진되는 것.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술연구 진흥 및 상호 공동 연구 ▲전시 및 연구를 위한 문화재 및 자료 협조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조선왕실의 자

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35만점의 민간 사대부 자료를 조사·수집한 한국학 전문 도서관이자 연구기관이다.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해제, 목록집 간행, 연구서 간행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계 특별전과 교육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올 연말에는 선비문화 주제에 맞추어 어린이박물관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선비문화실을 신설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은 한국의 선비문화가 향후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주박물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선비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과 연구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선비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미국 정통 재즈와 함께하는 하이진의 ‘사운드 오브 재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산책프로그램으로 미국 정통 재즈를 느껴볼 수 있는 ‘사운드 오브 재즈’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하이진의 목소리와 어울리는 재즈트리오의 연주가 특히 눈길을 끈다. 베이스리스트 최세열, 기타리스트 박갑준, 피아니스트 박지혜로 이루어진 재즈 트리오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재즈 아티스트들이다.

정통 재즈를 느낄 수 있는 ‘Auga de beber’, ‘My romance’ 등 곡들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편곡한 ‘내 맘 속 풍경’ 등으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김제시가 주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관람권 예매는 8월 20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판매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